

조선대 구조조정... 85개 학과 → 60개로

한문·선박해양공학과 폐지 등 내년부터 3년간 학과 조정 정부 지원사업 수주 총력...재정난 속 교직원 임금은 인상

조선대가 '구조조정 총성'을 울렸다. 전체 85개 학과를 60여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학사 구조 개편 뿐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한 생존 전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만, 학교측이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타개를 구조개혁 추진 사유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정작 교직원 임금을 인상키로 했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문학과 없애고 무용과도 구조조정"=27일 조선대에 따르면 강동원 조선대 총장은 최근 대학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9월 1일부터 구조개혁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과 평가결과를 거쳐 하위 10% 이내인 한문학과와 선박해양공학과를 없

애고 국어국문학과와 선박해양공학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비정상적 학사 행정으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공예예술무용학과도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선대는 또 전체 83개 모집단위를 60여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과 조정 방안을 담았다.

현재 정보통신공학과를 정부통신공학부 부로 확대, 정보통신전공(76명)·정보보호전공(30명)을 신설하고 전자공학과를 전자공학부(전자공학 90명·지능 IOT 60명)로 조정한다. 조선대는 당장 내년부터 이 같은 학과 조정을 시행,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올

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 '올인'=대학측은 또 대외사업조정위원회를 마련,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조선대는 지난 4년간 구조개혁을 통해 입학정원 523명을 감축하고 8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적자 규모가 50억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학교측 판단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따내는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현재 500명 수준의 해외 유학생을 1000명으로 늘리는 전략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어렵다며 임금 올리겠다" "비판도=반면, 조선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교직원 임금을 3% 인상키로 합의했다는 점은 대학 안팎에서 시선이 쏠리지 않는다.

입학생 수가 매년 줄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학생·학부모·동문, 지역민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기부운동을 추진했으면서도 교직원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시각도 적지 않다.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식 임금 인상"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손을 벌려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선대는 이와 연구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윤리적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연구 윤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구조개혁안에 포함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구조개혁안을 마련, 학생·교수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시·도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5 | 해질 18:50 | 달뜨기 06:34 | 달지기 19:01

그리운 봄빛 하늘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5mm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2/15	보성	맑은 뒤 흐림	-1/14	
목포	3/13	순천	맑은 뒤 흐림	3/15	
여수	맑은 뒤 흐림	영광	맑은 뒤 흐림	-2/14	
나주	맑은 뒤 흐림	진도	맑은 뒤 흐림	1/12	
완도	맑은 뒤 흐림	전주	맑은 뒤 흐림	2/14	
구례	맑은 뒤 흐림	군산	맑은 뒤 흐림	1/13	
강진	맑은 뒤 흐림	0/15	원주	맑은 뒤 흐림	-2/14
해남	맑은 뒤 흐림	-1/15	홍산도	가름호리고비	5/12
장성	맑은 뒤 흐림	-1/51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서~서	0.5~1.0	동~남동	0.5
남부	남바다	남서~서	0.5~1.5	동~남동	0.5~1.5
남해	남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서부	남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서부	남바다(서)	서~북서	1.0~2.0	동~남동	0.5~1.0

◇생황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2	02:11
	19:55	14:37
여수	간조	만조
	03:03	09:28
	15:28	21:44

◇주간 날씨

29(수)	30(목)	31(금)	4/1(토)	2(일)	3(월)	4(화)
☁	☀	☀	☀	☀	☀	☀
5/12	4/17	5/15	4/16	4/17	6/16	5/16

역사의 아이러니

이순자 자서전 발간 출판사 최초 설립자는 광주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출간한 '자작나무숲'이 원래 5·18을 겪은 광주 출신 강모씨가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4년 자작나무숲에서 첫 소설집 '거의 틀림없이 게임에서 이기는 불행'을 발간한 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53) 씨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작가는 "이상하게 역사의 퍼즐이 어긋나게 맞춰지는 것이 불쾌하다"며 "당시 발간한 소설집은 모두 5·18과 운동권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작가에 따르면 당초 자작나무숲 출판사를 설립한 강모씨는 전남대 불문학을 졸업하고 서울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활동했다.

"당시 강 씨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자작나무숲'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은 좋은 책을 만들어 '자작나무숲'을 이뤄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강 씨가 설립한 '자작나무숲'은 지난 2015년 무렵 폐업해 전 씨 가족이 이 상호를 쓰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다른 광주환경을 경험한 이들이 세운 출판사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이 작가는 "80년대 광주에서 대학을 다닌 학생들치고 심정적인 운동권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며 "작금의 상황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당혹스럽고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동심 만발 '함평나비대축제'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둔 27일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열린 나비 날리기 행사에서 참여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나비를 날리고 있다. 올해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이순자 궤변은 정부 특별사면 때문"

"술 일가 죄상 날일이 밝혀야"
5·18유공자유족회 등 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5·18과 우리는 무관하다"는 궤변을 담아 자서전을 출간하고, 2017년까지 5·18외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광주시민 바람을 무시한 김영삼 정부의 특별 사면조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27일 "자서전을 통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씨가 '우리도 5·18 피해자'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 수 있었던 근본 배경에는 광주 시민 바람을 무시한 김

영삼 대통령의 사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은 1997년 내란목적 살인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기징역이라는 단죄를 받았지만 수감 2년 만에 사면을 통해 풀려나 활개를 치게 됐다"면서 "김기야 5·18이 일어난지 37년이 되는 2017년에도 5·18은 온갖 외곡과 중상에 신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가 없었다면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테고 이에 따라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도 인생 말년에 자서전을 통해 5·18 관련, 억지 논리를 펼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법의 심판대에 설 바

근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코 사면조치를 고려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특히 역사적·사법적으로 판명이 끝난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 대통령을 자신의 입장에서 조만간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계획 및 그의 아내의 자서전 발간 행위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며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이순자 회고록(자서전)과 같은 퇴행적 현상은 5·18진상조사기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며 "새 정부에서 5·18진상조사를 통해 발표해야 할 규명은 물론 헬기 기총소사 등 전두환 일당의 죄상을 날일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고도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도입

전남 57곳·특성하고 47곳 시범 실시...정원 5% 저소득층 선발

올해 고교 입시부터 능주고, 장성고 등 전남 지역 일반고와 특성하고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게 된다. 능력보다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전남과 대전지역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고교에 사회통합전형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한 제도다. 과학고 외국고 등 사회통합전형(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고·특성하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전남의 경우 올해 목포·여수·순천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 전체 일반고(57곳)와 전체 특성하고(47개교)에서는 정원의 5% 내외(총 711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했던 능주고·장성고·창평고·해룡고 등의 진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업률이 높은 특성하고 인과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1일만에...우치동물원 30일 재개장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이 오는 30일 다시 문을 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지난해 12월20일 임시휴장을 들어간지 101일만이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겨울철새 이동 시기가 종료됐고 동물원 내 사육 조류에 대한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9시 동물원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에는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3종 22마리, 홍학·오색앵무 등 멸종위기종 20종 67마리 등 총 54종 465마리의 조류가 살고 있다.

한편, 용인 에버랜드 등 다른 지역 동물원도 이미 부분 개장했거나 비슷한 시기에 재개장한다. /전혜지기자 e66221@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1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1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스타일(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음식점/점포
- ▶ 팬션/콘도
- ▶ 뷔시터, 야유회
- ▶ 캠핑시